

5. 예수와 어린이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축복해주기를 바랐다. “사람들이”라고 번역된(마르 10, 13) 원문은 “그들이”인데 그것은 그 전에(10, 1) 모여든 ‘민중’을 지칭한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을 거부했다. 이것을 본 예수는 “노하시면서”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마라. 하느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라고 선언한다. 이어서 어린이를 기준으로 삼아 “누구든지 한 어린이의 심정으로 하느님 나라를 맞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다. “어린이의 심정”이란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론(定論)이 없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이 있다. 즉 그 말이 지칭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윤리나 도덕성은 아니며, 종교성은 더욱 아니고, 그렇다고 ‘효용성’은 물론 아니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저들의 ‘공적’과는 상관이 없다. 있다면 ‘어린이’라는 것 자체가 그대로 인정되되 새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전형적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 선언은 제자들의 태도에 반영된 유다교의 어린이관의 배경에서 보면 그 성격이 민중의 경우와 같다. 어린이는 바리사이체제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까닭은 바리사이체제란 계율을 알고 지킬 수 있는 자들을 위한 것, 즉 성인의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다 사회에서는 어린이를 멸시했던 것이다. 이러한 어린이가 새로운 가치기준이 된 것이다. 그러면 가치란 무엇에서 성립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는 대상이 뚜렷한 경우이다. 민중 또는 어린이 자체의 가치를 어떤 기준에서 물으면 그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효용가치를 찾게 된다. 그럴 때 그것은 물화(物化)된다. 이에 비하여 저들을 위하는 데서 삶의 의미(보람)를 느낄 때, 저들은 비로소 나의 가치

가 되는 것이다.

6. 혼동의 현장

오늘 이 땅의 가치관은 뚜렷하다. 그건 부강(富強)이다. 바로 재력과 권력이다. 이것을 이룩하는 것이 근대화이다. 그 바탕을 이루는 것은 실리·실용주의이다. 잘산다는 것이 바로 부강해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까닭은 실용주의는 몰윤리화의 길이니까! 그런데 최근에 어디서 거론하기 시작했는지 모르나 충과 효가 가치체계의 기준처럼 내세워지고 있다. 근대화에 충효가 어떻게 결부되나? 자전거를 타고 상투를 틀라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 충효란 봉건체제의 유물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불신하기 앞서 더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어른이 어린이에게 해야 할 의무에 대한 어떤 제시도 없고 단순히 아래에서 위를 향해 해야 할 의무만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요새 '3대 스캔들'이니 해서 야단이지만 놀랄 것 없다. 왜냐하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며, 그것은 당연한 귀추니까! 부강을 제일목표로 하는데 전화 한 번으로 천여만 원의 불로소득을 마다할 '병신'이 어디 있으며, 눈만 가릴 길이 있다면야 교사자격증을 사는 것이 계산상 맞는데 왜 안 한단 말인가! 어린 소녀들을 무더기로 농락한 권력 있는 파렴치범에게 적용할 법이 없어 처벌 못한단다. 모두 어른들, 부강한 자들이 한 짓이다. 그런데 이런 성인들이 어떻게 충효만을 강조할 수 있나? 글자 그대로 성인폭력의 시대이다. 지금의 성인은 충효를 받아야 할 대상이고, 그 의무는 없는 결과가 됐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다는 녀석들이 돈을 주